

# 우리옛돌박물관

## I. 기관 정보

관 기본 사항	관 명	우리옛돌박물관		
	주 소	(우: 02822)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 13 길 66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eanstonemuseum.com">http://www.koreanstonemuseum.com</a> <a href="http://www.우리옛돌박물관.com">http://www.우리옛돌박물관.com</a>		
	대표전화	02-986-1001	대표팩스	02-986-3600
	운영 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박물관 <input type="checkbox"/> 미술관 <input type="checkbox"/> 국립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대학		
담당자	성 명	주연경	직위/부서	부장/학예실
			이 메 일	haemail@ksmuseum.com

## II. 일반현황

조직구성	관장1, 부관장1, 학예사2, 직원6 등	
	※ 학예사 현황(자격증 취득자) : 2명	
교육 공간 현황	교육실 1 곳, 전시실 4 곳(환수유물관, 동자관, 벽수관, 자수관), 야외 체험 공간 등	
교육 공간 수용인원	약 30 명	
보유 기자재 현황	빔프로젝터 1대, 이동 스크린 1대 등	
입지조건	인근 1Km 이내 성북초등학교, 2Km 이내 한성대입구역(4 호선) 위치 등	
휴관일		개관 시간
매주 월요일, 관에서 정한 일		- 동절기 :10:00-17:00 - 하절기 :10:00-18:00
교육 공간 사진		
	2층 교육실	2층 벽수관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
관 전경 사진		
	전경 사진	야외 전시장

### Ⅲ. 2022 년도 전시 계획

구분	일자	전시명	관람 소요시간	내용
1	상시	바다를 건너온 돌사람, 고국의 품에 안기다	10분	문인석은 장군석, 석수石獸와 함께 능묘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조각이다. 천 년간 한결같이 능묘를 지켜온 문인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다수가 일본으로 밀반출되거나 헐값에 팔려나갔다. 우리옛돌박물관은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문인석들을 모아 국내로 환수하였다. 돌아온 돌사람은 한국 돌의 힘과 위엄을 보여준다. 전시유물 : 일본에서 환수한 문인석, 47 점 시대 : 조선초기 - 조선후기
2	상시	기원의 언덕, 소원을 품다	10분	동자는 도교에서는 신선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곁에서 모시며, 유교에서는 무덤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아이이다. 동자석은 불교, 도교, 유교, 무속신앙 등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어 다채로운 형태를 지니며 그 역할 또한 무덤의 수호신, 마을의 지킴이 등 다양하다. 전시유물 : 서울·경기 지역의 동자석, 63 점 시대 : 16-18 세기
3	상시	한국인의 얼굴, 희로애락을 노래하다	10분	벽수는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워 전염병을 옮기는 역신이나 잡귀로부터 마을을 지켰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을의 구전설화와 민중의 정서가 반영되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존재로 다가온다. 전시유물 :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벽수, 84 점 시대 : 조선중기-조선후기
4	상시	어머니의 정성, 한땀한땀 사랑을 짓다.	10분	자수는 옛 여인들의 미적 감흥과 꿈을 표현하는 유일한 세계이다. 자신의 마음을 섬세하고 자유롭게 오색실에 담아 가족의 행복·건강을 기원하였다. 이렇듯 우리 자수의 역사는 한국 여인네의 오롯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전시유물 : 강원도 자수, 자수베개, 조각보, 수저주머니 등 자수작품 280 점 시대 : 조선초기-조선후기
5	상시	추상. 구상. 사이.	10분	광복 이후 한국미술의 부흥기를 이끈 대표적인 서양화가 김환기, 이우환, 이응노, 유영국, 이대원, 권옥연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시대 : 근·현대

## IV. 사업계획서

### 1.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배우면서 달리는 런닝스톤(RUNNING STONE)
주 제	수북강녕과 길상의 기원을 담은 석조유물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유물에 대해 인지하고,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을 통해 전통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이해한다.
교육목적	딱딱한 설명 위주의 전시 관람이 아니라 참여자가 직접 유물을 찾아다니며 보고 즐기는 놀이형태의 관람을 유도함으로써, 석조유물의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소요시간	1시간
인 원	목표 인원 : 총 160명 / 수용 인원 : 30명
형 태	(대면)전시관람+체험활동
교육장소	우리옛돌박물관 실내·외 전시장, 교육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li> <li>○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li> <li>○ 석조유물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전통사회 가치관 이해</li> <li>○ 관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li> <li>○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박물관이라는 인식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li> </ul>

## 2. 세부 추진 계획

### 1) 프로그램 세부 내용(학습지도안)

단계	시간	활동내용	강사	교육장소
도입	10분	1. 오리엔테이션 및 박물관 소개(5분) - 박물관 노닐기 애니메이션 사전교육영상 관람 2. 프로그램 방법 안내 및 교구재 제공(5분) - 조편성 - 런닝스톤 지도 및 상징 지물 스티커 제공	신지연	교육실
전개	40분	조별프로그램 진행 - 보물찾기 방식으로, 유물에 새겨진 지물을 찾아 박물관 곳곳을 뛰어다닌다. - 지물을 찾고, 그 지물에 해당하는 퀴즈를 푼다. - 이 과정을 통해 석조 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한다.	신지연	실내·외 전시장, 교육실
마무리	10분	1. 전시해설 - 게임 후, 전시해설을 통해 각 지물의 상징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철학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소감발표	신지연	실내전시장